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해외여행 AI 인체감염 주의보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서도 AI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등 AI 인체감염 발생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AI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지난해 12월 26일 당부했다.

최근 파키스탄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페샤와르 지역에서 8명의 고위험성 AI 바이러스(H5N1) 인체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버마도 AI 인체감염 환자가 한명 발생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이나 AI 발생농가를 출입하지 말고, AI 발생 국가(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시장, AI에 감염된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 질병관리본부

일본

닭 가슴살을 전기처리로 맛있게

닭 가슴살을 20볼트의 전기로 3분간 처리하여 맛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일본 아자부(麻布)대학 수의학연구과의 사카다(坂田亨一) 교수 등이 개발한 기술로 '숙성되기 때문에 당일 출하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카다 교수는 "값싼 가슴살이 비싸게 팔리면 농가에도 이익이 크다"며 기대하고 있다.

닭 가슴살은 다리 살에 비해 도매가격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다. 유럽에서는 저칼로리로 인기가 높지만, 일본에서는 푸석푸석한 맛 때문에 인기가 없다.

그러나 가슴살은 뼈 채로 하루 밤 숙성시키면 맛있는 성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햄 회사 및 브랜드 닭 출하조합 등에서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통상의 배(倍) 정도로 가격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신선육의 유통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고, 숙성시키는데 일손과 공간(空間)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숙성 가슴살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사카다 교수가 개발한 방법은 뼈 채로 '20볼트에서 3분간' 통전(通電)처리함으로써 '하룻 밤 숙성' 시킨 효과를 낸다. 따라서 당일 출하에도 대응할 수 있고, 숙성을 위한 공간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뼈를 없앤 고기는 서서히 발생하는 사후(死後)경직에 의한 수축 때문에 육즙이 빠져버린다. 통전처리는 '사후경직을 앞당기는 것' 이라고 보면 된다. 즉 뼈가 붙은 채로 사후경직을 앞당기기 때문에 뼈가 고기의 수축을 막아주고, 육즙이 빠지는 것을 막아 요리의 손실도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관능(官能)실험에서도 촉촉함, 부드러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부차적인 효과로 통전에 의한 살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카다 교수는 그 구조를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농업신문

1월 이후의 배합사료 가격 대폭 인상

일본은 올해 1~3월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료원료가격, 선임, 환율 동향 등이 나날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젠노와 상계 각사의 가격설정도 유동적이거나 톤당 4,000엔 전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사료기금으로부터의 보전은 계속되지만 보전액이 감액되

기 때문에 생산자의 실질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생산코스트는 오르는데 제품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계란은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 KM

독일

닭에서 H5N1형 AI 양성반응

독일 Brandenburg주의 북쪽에 위치한 닭농가에서 H5N1형 AI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방역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AI에 감염된 31마리의 조류는 살처분되었고 이것은 Brandenburg에서 지난 10일 동안 3번째 AI 발생이다.

독일당국은 지난해 초 2농가에서 AI가 발생하자 수만마리의 조류를 살처분한 바 있다.

- 로이터

UAE

독일의 Brandenburg 지역 가금 수입금지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최근 독일의 Brandenburg에서 치명적인 H5N1형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가금육과 가금 모두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지난해 12월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금지대상은 사육되는 가금뿐만 아니



라 야생조류, 축산물까지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 로이터

방글라데시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2만수 살처분

지난 1월 1일 방글라데시 정부관계자는 방글라데시 수도내의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 바이러스 확인후 약 2만수의 닭을 살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염은 Dhaka 외곽의 Mirpur 지역이며, 지난해 3월 수도인근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된 이후 주로 북부지역으로 확산이 이루어졌고 30만수 이상의 닭이 살처분되었다.

방글라데시는 약 4백만명이 가금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 로이터

미얀마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미얀마 동부 산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새로 발생했다고 관영 신문 '미얀마의 새 등불'이 지난해 12월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곤에서 동북쪽 580km 떨어진 양크함 마을에서 가금류가 폐사,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에 감염

돼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AI에 걸려 폐사한 가금류의 숫자는 공표되지 않았는데 당국은 주변의 가금류 1,000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발병으로 인해 인체 감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이래 주로 동남아에서 확산된 H5N1형 AI로 2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

캐나다

고병원성 H7N3형 AI 발생 닭 살처분 완료

캐나다 방역당국(CFIA)은 Saskatchewan의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후 주변의 모든 닭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고 지난해 12월 2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생한 H7N3형 AI는 2004년 캐나다 서남쪽에 위치한 British Columbia주에서 발생한 AI와 같은 유형으로 그 당시 약 1,70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바 있다.

CFIA는 약 50,000마리의 닭을 살처분을 완료하고 매몰했으며 주변 농가, 운송차량, 각종 장비의 소독을 마쳤고 발생지역 주변에서 추가로 AI 발생은 없었으며 추후 농가에 새로운 닭들이 입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프롬메드메일